## '40년 훼손' 무등산국립공원 너와나목장 부지 복원한다

흑염소 방목·외래목초 식재 훼손 심각 목장 울타리 철거·생태교란식물 제거

40여 년 동안 훼손돼 온 무등산국립공원 지구 내 너와나목장 부지에 대한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는 19일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목장 울타 리 시설 철거를 시작으로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수만리 너와나목장(13만2420㎡)은 지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흑 염소 방목과 외래목초 식재로 자생식물 서식 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또 목장 울타리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경 로가 막히고 경관 생태계 단절도 극심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훼손된 생태 계 복원을 위해 지난해 6월 핵심지역 보전사 업의 하나로 너와나목장 부지를 매수했다.

이후 훼손지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풀,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식물이 목장지 전체에 서식하고 있고 울타리와 콘크리트 구조물 등 폐기물도 300여 t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에는 화순문화원 주관으로 '무등 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과 대국민 생태서 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복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너(국민)와 내(국립공원)가 자연으로 돌려주다'를 기본 방향으로 너와나 목장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복원계획은 너와나목장 부지에 복원공간, 교육·체험공간, 소통공간,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복원과 환경교육, 생태체험, 국민참여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오는 25일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너와나목장 내 생태계 교란 식 물 제거와 경계 울타리 철거작업을 벌일 계 회이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의 야생생물 서식에 장애가 됐던 경계 울타리 철거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시작으로 40년간 훼손된 너와나목장 부지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이다"며 "국립공원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19일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와 목장 울타리 시설 철거를 시작으로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 미래교통 수단 '도심항공교통', 전남 하늘길 연다 전남도, 관광벨트·섬 긴급수송 항로 개설 연구용역 내년 4월까지 추진



대한항공이 도심항공교통(UMA)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에도 미래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 (UAM·Urban Air Mobility) 도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UAM 조기 상용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긴급 수송 분야 등과 연계한 '전남형 도심항공교통(UAM) 항로 개설 연구' 용역을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PNU드론,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여수·고흥·신안 일원을 대상 지역으로 도심항공교통 항로 개설, 수직 이착륙 비행장(버티포트) 최적지 분석, 중대형 드론을 활용한회랑의 적합도 실증을 추진한다.

대한항공과 PNU드론은 장애물 분석을 통해 예비항로를 설계하고, 통신전파·기상 환경을 분석·적용해 최적의 항로를 선정한다.

대우건설은 기체 진·출입로 구조 설계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지반·기상·전파 환경 을 분석해 수직 이착륙 비행장 최적지를 찾 느다

전남도는 이번 과제를 통해 '전남형 항로·수 직 이착륙 비행장'에 대한 기술적·환경적 분석 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대비한 본격 적인 사전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목표' 정책 기조와 향후 '국토부 실증·상용화 시범사업' 추진에 사전 대비하고 전남형 도심항공교통 산업 운용체계 기반 구축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항로 개설을 통해 남해안권 관광과 섬지역 긴급수송·재난 등 미 래 신사업 서비스 시장을 발굴하고 도심항공 교통 산업이 전남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 346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테스트베드를 구축하다.

또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7개 연합체, 55 개 국내 대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해 오는 8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도심 외 개활지 기체 안 전성과 통합 운영성 확인 실증에 나선다.

실등에 나신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Only to Entire Community of the Communit

#### "갈등 없는 광산, 우리가" 이웃갈등 조정가 5기 양성

광주 광산구가 생활 속 다양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이웃갈등 조정가 5 기' 양성에 나섰다.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은 '광산형 이웃갈 등 자치조정 시스템'의 일환이다.

충간소음·주차·흡연 문제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웃갈등을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할 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주민대표조직(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총 10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갈등관리 전문가의 참여로 갈등해결 기술을 배우는 기본 과정과 실제 갈등을 조정 하는 실습을 포함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이웃갈등 조정가' 양성교육 수료증을 교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일상 속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 현대삼호重, 직원 가족 안전 응원 메시지 사내 방송 '호응'

회사 임직원 가족 대상 지난 4월 중순부터 16일간 공모총 1056명 응모…심사 거쳐 우수작 16편 선정 경품 수여

HD현대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매일 하루에 두 번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의 안

민희 태양광발전소

8 정원3호 태양광발전소

10 봉황솔라팜 태양광발전소

9 희망 태양광발전소

전 응원 음성 메시지가 88만평 회사 전 지역에 사내 스피커 1,000여 개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1,211 m²/11,570 m²)

(956m<sup>2</sup>/11,570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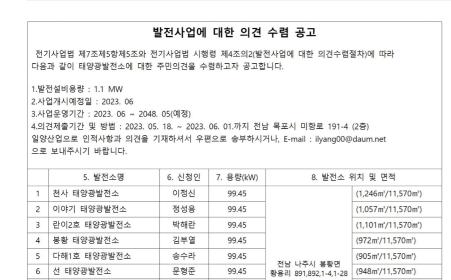
(980m²/11,570m²)

(1,017m<sup>2</sup>/11,570m<sup>2</sup>)

안전 응원 메시지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임직원들로부터 공모했다. 임직원 가족이나 지인이 안전 응원 및 당부의 말을 1분 이내 음성 메시지에 담

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1056명이 응모했으며, 현 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심사를 거쳐 우수작 16 편을 선정해 최신형 노트북과 아이패드, 리조 트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수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많은 직원들이 쉬는 시간 중 안전을 당부하는 가족의 목소리에 안전 수칙을 한 번 더 챙기고, 안전 작업에 대한 다짐을 되새기게 된다"며 "회사의이러한 노력들이 무재해 작업장 달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99.45

99.45

99.45

김민희

안경연

정미승

최주경





